

함께가는 여성

361. 3644

1998 2



생활의 주인 · 일터의 주인
사단법인 한국여성민우회 제11차 정기총회

부역밖세상풍경 IMF와 여성노동자
 패자부활전의 승자는 누구인가
 특집 제11차 정기총회
 서로에게 힘이 되는 사람들



한국여성민우회

1998

2

더불어한결음씩

세상과 함께 어우러진 평등결혼

부엌밖세상풍경

패자부활전의 승자는 누구인가

특집

서로에게 힘이 되는 사람들

문화마당

가면을 벗고 인간의 정으로

몸과맘

콩을 먹으며 건강을 지킨다

상담소

이런 상담을 했습니다

아들과함께

톡톡 튀는 아이 그리고 나

미디어운동본부

내가 꿈꾸는 세상은

이사람

문을 두드려 주세요

회원이야기

내 생활을 찾아준 민우회

책과어린이

어린이책, 어떻게 골라줄까

지부소식

생활협동사업부

IMF와 생협운동

자신있게관하는생활제

회원과 함께 만듭니다

생활재안내

알림마당

등록번호/라-6763 · 발행일/1998년 2월 1일 · 통권/126호 · 등록일/1997년 8월 25일 · 발행인/이경숙 · 편집인/정대은 · 편집위원/윤정숙, 양해경, 김현미, 명진숙, 정은숙, 김정민 · 발행처/한국여성민우회 · 주소/서울시 중구 장충동 1가 38-84 여성평화의집 1층 · 전화/269-5763-5 · 전송/269-5766 · 하이텔, 천리안ID/a325

더불어한결음씩

세상과 함께 어우러진 평등결혼

박진경 지역사업부장



“결혼한 지 3개월 됐네. 신혼재미가 어때?”

결혼식 날짜를 정하고부터 결혼에 관한 인사말을 듣기 시작한 지 벌써 6개월째다. 남녀가 만나 독립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일이 엄청난 삶의 변화이고 중요한 과정의 하나임은 분명한 것 같다.

학교를 졸업한 뒤 좀 더 나은 세상, 그 뜻깊은 변화를 기대하며 민우회에서 바쁜 일상을 보낸 지 만 5년이 되었다. 마음이 같은 여성들과 나누는 의미 깊은 이야

기들이 많이 오가는 곳이라 참으로 소중한 기쁨을 누렸다.

그런데 간접적으로 접한 우리 주변의 물질적이고 남녀 차별적인 결혼문화와 가족관계로 인해, 해보지도 않은 결혼에 대한 걱정이 앞서기도 했다. 가끔은 연애 Yes, 결혼 No!도 외쳐 보고, 이도 저도 안되면 부모님 모시고 (?) 독신으로 살란다 다짐도 했다.

그러던 내가 결혼을 준비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입이 귀밑까지 걸려 다물 줄을 모르고 있다. 또한 한 술 더 떠 이렇게 좋은 결혼을 왜들 안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만혼 경향이 있는 민우회 실무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결혼에 대한 환상이 깨질 만도 한 3개월의 시간. 그러나 결혼전선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은 감정만 앞세워 후회스러운 결혼이 되지 않기 위해 냉정하게 정리해 본 ‘협상기록’ 때문이 아닐까.

“우리의 사랑이 둘이서만 나누는 편애적인 사랑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함께 어우러질 넓은 사랑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며 살자꾸나. 서로의 지지자가 되어 아직은 변화되어야 할 게 많은 우리 사회의 건강한 성원으로 살자꾸나.”

결혼 전부터 한국사회의 여성들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등시민이 된다는 객관적 사실에 대한 인정을 시작으로, 여성이 평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우대 조치가 필요하다는 논리로 가사노동의 분담에서부터 시집과 친정간의 평등한 관계 등을 침투시켜가며 논쟁하여 만든, 약간은 유난스러웠던 우리의 결혼노트와 결혼신문, 소중한 인생 최대의 협상기록을 꺼내 점검할 때인 것 같다.

얼마전 시댁에 다녀온 후 남편에게 마구 짜증을 냈다. 그날따라 이유도 없이 짜증이 났다. 그런 나를 보며 남편은 얼마나 답답했을까. 다음날 선배들에게 물어보니 나의 짜증은 며느리들만이 느낄 수 있는 것이란다. 가장 현명하게 합리적으로 만들어갈 결혼생활을 포함한 나의 삶을 기대하였는데..., 그 ‘이유없는 짜증’에 나역시 답답했다.

눈빛만 봐도 가려운 곳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기까지 우리의 ‘협상기록’들을 자꾸 되새기며 살아야 할 것 같다. 그것이 30여 년간 달리 살아온 남녀의 ‘세상살기’ 방법이며 여성운동단체의 실무자가 만드는 평등한 결혼생활이 아닐까... ●●●